

나와 함께 하숙을 하고 있는 룸메는 지뢰찾기에 미친놈이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유치원 때, 처음으로 컴퓨터를 켜서 한 게 지뢰찾기라고 한다. 그리고 심지어 고3 수험생활 때도 인강을 들으려고 컴퓨터를 켜면 어느새 지뢰찾기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헌데 이 모든 말들이 거짓말이 아닌 것 같은데 지뢰찾기 정말, 엄청나게, 겁나게 잘한다. 고급 난이도도 그의 손을 거치면 1분 언저리에 99개의 지뢰가 색출된다. 매일같이 딸각거리는 마우스 소리에 노이로제가 걸리다 못해 이젠 아름다운 소리라고 느껴질 지경까지 다다를 무렵, 우연히 마트를 지나가다가 '오프라인 지뢰찾기'라는 게임기를 발견했다. 와, 이젠 하다하다 현실에서도 저런 게임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게 내 룸메인 것 같아서 큰맘 먹고 게임기를 사왔다.

본인 : 야, 게임기 사 옴.

룸메 : 뭔 게임인데?

본인 : 네가 미쳐있는 지뢰찾기.

룸메 : 미친? 그걸 왜 사 와. 컴퓨터에 있는데 헛돈 썼구만.

본인 : 일단 해보거나 해.

부스럭- 부스럭-

룸메 : 오. 있어 보이게 생겼군.

본인 : 너 요새 그 뭐냐. 플레이 시간 더 줄인다고 하지 않았냐?

룸메 : 영. 50초 안에 하는 게 내 목표야.

본인 : 어디 보자. 설명서가 요 있네. 흠, 야, 거기 시계 보이냐?

룸메 : 이거?

본인 : 영. 그걸로 타이머를 설정할 수 있대. 시간 안에 못하면 자동으로 게임이 종료된다.

룸메 : 호옹이? 쫄깃한 게임을 즐길 수 있겠군.

본인 : 그리고 고급모드는 깃발 제한이 있다는데. 일정 개수 이상으로 깃발 표시가 안 되나봐.

룸메 : 와 이거 만든 사람도 어지간히 지뢰찾기 좀 했나보다. 그런 기능을 넣을 생각을 하다니. 솔직히 나도 요새 일부러 깃발 안 쓰고 그러는데 내 마음을 딱 알아버렸군.

본인 : 야, 깃발 사용 불가 모드도 있대. 이거 가능하냐?

룸메 : 없는 인성 만들어서 파탄 나야 가능할 듯. 오, 좋아. 깃발 모드 깨러 간다.

본인 : 내가 제대로 사온 거 맞겠지? 판도라의 상자를 연 건 아니겠지?

- 깃발 개수 제한 모드와 깃발 사용 불가 모드가 있다. 개수 제한 모드는 사용자가 지정한 개수 그 이상으로 깃발을 세울 수 없고 사용 불가 모드는 깃발을 1개라도 세울 수 없다. 이를 통해 기존 지뢰찾기 게임보다 훨씬 더 어려운 난이도로 게임을 진행 할 수 있다.

- 타이머가 있다. 기존 지뢰찾기 게임은 시간제한이 없지만 타임 어택 모드로 플레이 할 경우 제한 시간 내에 모든 지뢰를 찾지 못하면 게임 오버이기 때문에 더 높은 난이도로 게임을 진행 할 수 있다.